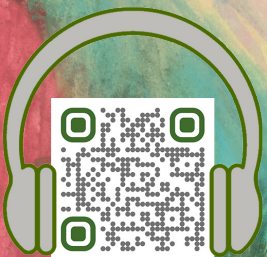


《노를 든 신부》

외딴 섬에 사는 한 소녀가
신부가 되어 섬을 떠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낡은 드레스와 노 하나를 주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 하나로는 배를 탈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든 신부를 다 태우는 내 배를 타시오!”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내 배를 타시오!”
신부는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소리 |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서양화를, 힐스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으며 마음이 자라던 기억과 놀이공원, 공장, 골프장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저마다의 시선으로 즐겁게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은 책으로 《빨간 안경》, 《엉엉엉》이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그림책입니다.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노를 든 신부>를 들어보세요.



외딴 섬에 심심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신부와 신랑이 되어 섬을 떠났거든요.
'나도 신부가 되어야겠어!'
소녀는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부가 된 소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새로운 마음이 들어 설레었습니다.

바닷가는 짝을 지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탈 배를 찾기 위해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드레스와 노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소녀가 아니라 신부구나."
두 사람은 소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이윽고 신부를 찾는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을 나갈 배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부의 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노 하나로는 갈 수 없어요."

섬 한 바퀴를 돌았지만
신부는 자신을 태워 줄 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바닷가를 떠나 산으로 갔습니다.
종턱쯤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가 노를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배는 이 섬에서 가장 호화롭지요.
이 배를 타면 모두가 부러워할 거요.”
“이건 아니야.”
신부는 배를 등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 배에 타시지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요.”
“흠...”
신부는 얼른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라리 심심한 게 나은지도 모르겠어.’
신부는 숲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늪에 빠진 사냥꾼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늪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냥꾼이 원망스러운 듯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구해 주지 않는 거죠?”
“지금 밧줄을 찾고 있어요!”
“당신에겐 기다란 노가 있잖소!”
신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 당신은 천재예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 야구를 했습니다.

신부는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사냥꾼을 구해 주고,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
신부는 과일을 따고,
요리를 하고, 격투를 했습니다.

타-악!
흙먼 공이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오오! 사람들이 신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유명한 야구팀의 감독들이 소문을 듣고, 바다 건너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감독들은 앞 다투어 신부를 자기 팀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신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추운 지방의 야구팀과 계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눈을 보고 싶으니까요!”

외딴 섬에 심심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신부와 신랑이 되어 섬을 떠났거든요.
'나도 신부가 되어야겠어!'
소녀는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드레스와 노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소녀가 아니라 신부구나.”
두 사람은 소녀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신부가 된 소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지만, 새로운 마음이 들어 설레었습니다.

바닷가는 짝을 지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탈 배를 찾기 위해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윽고 신부를 찾는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을 나갈 배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부의 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노 하나로는 갈 수 없어요.”

섬 한 바퀴를 돌았지만
신부는 자신을 태워 줄 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바닷가를 떠나 산으로 갔습니다.
중턱쯤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신부가 노를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배에 타시지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요.”
“흠...”
신부는 얼른 그곳을 떠났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배는 이 섬에서 가장 호화롭지요.
이 배를 타면 모두가 부러워할 거요.”
“이건 아니야.”
신부는 배를 등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차라리 심심한 게 나은지도 모르겠어.’
신부는 숲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늪에 빠진 사냥꾼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늪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냥꾼이 원망스러운 듯 소리쳤습니다.
“왜 저를 구해 주지 않는 거죠?”
“지금 밧줄을 찾고 있어요!”
“당신에겐 기다란 노가 있잖소!”
신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 당신은 천재예요!”

사냥꾼을 구해 주고,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
신부는 과일을 따고,
요리를 하고, 격투를 했습니다.

타-악!
흙먼 공이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오오! 사람들이 신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과 함께 야구를 했습니다.

신부는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유명한 야구팀의 감독들이 소문을 듣고, 바다 건너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감독들은 앞 다투어 신부를 자기 팀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신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추운 지방의 야구팀과 계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눈을 보고 싶으니까요!”